

다 때가 있나니

전도사3:1-8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그 전환점이 지속이 된다. 때로는 문제가 있지만 항상 이 전환점이 우리주위에서 나타난다. 만약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 사람이 살아나는 일과 지속할 제자가 드러난다. 굉장한 전환점이다. 이런 일이 없는 것과 일어난 것과는 천지 차이이다. 0 하고 100차이다. 이것을 지속을 하고 있으면 나라와 시대에 쓰임을 받게 된다. 내가 만일 남미 한 나라에 이런 쓰임을 받는다면 시대적인 응답이다. 당연히 작품인생이 된다. 미국, 남미, 램네프, 다민족이란 언약을 예사로 보면 안된다. 강단은 인생의 답으로 얻는 것이다. 말씀으로 하시기에 인생에 답이 되는 것이다. 다른 모든 메시지 훈련은 세계복음화의 방향으로 보고 언약으로 잡고 예배에 성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1. 다 때가 있나니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한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하였다. 그 이후에 이때가 어떤 때인가를 상세하게 설명해 나갔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정한시간표이기에 절대 손을 못된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최선이다. 순종이 안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한다. 복종 안해도 필요없다. 그냥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없다. 혹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싫다고 안 따라간다고 해도 필요없이 절대 원칙이다. 창조이 질서는 모든 피조물이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원칙이다. 아무리 잘나고 능력있는 인간이라도 이 질서안에 있어야 생명이라도 유지한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 창조의 질서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아무런 대가없이 살아가게 하셨다. 이것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은 눈이 열린 것이다. 인생에 굉장한 팁이다. 내 마음대로 절대 안되기에 하나님따라가겠다, 굉장한 사람, 답난 사람, 눈 열린사람, 그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이다. 내게는 더 편하고 쉬운 것이다 안 바뀌니까 천한 만사에 다 내 때가 있다고 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따라 오라는 것이다. 그러면 네 인생을 인도해주고 축복해줄것이라는 약속이다. 이 절대 주권을 행한 것은 너를 살리고 축복하려고 한것이지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너는 이 원칙을 따라오기만 하면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이다. 1절부터 말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다 내때가 있다고 사람은 이 원칙을 벗어나서 살려고 해도 안된다. 대부분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사는 것은 내 중심이다. 물론 거기에다 하나님은혜가 있지만 만약 하나님중심으로 살게 되면 승리한다. 네 스스로 살게 되면 안되고 너는 내가 주는 것이 없으면 네 생명도 유지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다. 눈을 뜨고 감사하고 나의 뜻에 순종하라. 그러면 내가 축복을 줄것이고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할 것이다. 이 원칙은 세상을 살리는 근본이다. 내가 천하만사에 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것이 근본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 위에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 있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따라가면 사람은 누구든지 평안하고 승리하고 정복하는데 방해하는 자가 있다. 이 사단과의 전쟁이다. 이 악한 것은 원죄의 원인이다. 그리고 우리 인생 모든문제의 원인이다. 세상 모든 문제가 이 악한 것 때문에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내서 이 악한 것을 깨겠다고 하신 것이다.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기 때문에 이것이 원인이다. 지금도 속여서 자꾸만 옆길로 가게 한다. 내가 네게 준 언약을 네 안에 회복하고 전쟁을 붙여라. 우리는 힘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래서 시작만 해라 내가 역사하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데 이것을 안하려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 성공못해 세상 만사를 내가 잡고 있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느냐 그 때를 내가 잡고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전쟁을 붙여라 내가 역사할 것이다. 내가 내 때를 너한테 줄것이야 약속되로 될것이라고 성경에 기록했으니 잊어버리지 말고천한 만사에 내 때가 있고 너는 기다려야 할 존재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너는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때가 너에게 가장 좋은때야 언약잡고 기다려라.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너를 저주하는 일은 절대 없다. 반드시 너를 저주에서 건지실 것이다. 영생을 줄 뿐만 아니라 네 인생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상황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 내 때가 있고 다 이유가 있어 사람이 보는 기준으로 네 인생의 기준을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고 저주에서 건지고 네 인생을 정복하게 할테니까 기다려라. 이 사실을 네가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전쟁하는거야 사단과 전쟁, 뱀의 버리를 계속 매일 깨는거야 이거 뿐이야 이것이면 충분해 이유는 하나이니까 오직 그리스도여야해 답이 한 개니까 명심하고 잊지 말고 지속해라. 때로는 하기 싫을때가 있다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면 내가 내 때를 보는 날이 올 것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이다. 성경은 언제나 원인도 하나 답도 하나인 것을 말해주었다. 그 원인 하나 때문에 모든문제 왔으니 답 하나로 모든 문제 해결해주었다는 것을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언약이 회복되면 영적인힘이 나타난다. 왜 이것이 안될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안되면 써보라는 것이다. 대부분은 안한다.듣고 지나간다. 메시지를 한번 듣고 넘어간다. 진짜 말씀이러야 하는 답이 나면 자꾸 듣는다. 들을 때 적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세길려고 발버둥을 칠것인데 이것이 안된다.그런데 하는데 왜 안되냐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내용이다. 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때가 있다. 성경에 인물들이 그 때를 만나 시대적인 응답을 받았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응답을 받는 사람은 많다. 남미에 제자들이 정말 되는 어떻게 할것이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너는 죽었다고 하면 틀릴 것이다. 나중에 총리된후에 뭐라고 할것이나...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홍해 앞에 난리났던 사람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을 주도 했던 사람일

것이다. 고쳐야 한다. 언약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내 생각을 고쳐야 한다.

2. 절대주권

오늘 본문 조금 벗어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위에 더할수도 없고 그위에 덜할수도 없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면 경외 하려고 하는 줄 알 것이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영원한것이라서 바꿀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일에 인간은 아무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처음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 불신자도 그렇다. 무언가에 죽는것에 대한 것을 찾게 된다. 그러나 동물은 그런게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작과 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한계를 벗어날 수 가 없다. 모든 피조물이 이 원칙안에 있다.순종하기 싫으면 그냥 복종이라도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서 평생 소리 지르고 고통질렀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절대로 그냥 자신을 다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 최고로 좋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자는 누리게 된다. 그래 딱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이다. 그러면 살아날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그래서 하나님은 피조물 세계에 절대자이시다. 단 한가지도 하나님 허락없이는 안되어지는 것이다. 완전 정복이고 완전 절대자이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다 하실수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 되어져야 전부 정상이다. 다 하나도 한순간도 이 부분에 대하여 예외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단의 운명에서 해방이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우리에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운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감사하고 축복이다. 이것은 운명이 되면 될수록 더 축복이 되는 운명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나 실수도 당신의 영광으로 바꿀수 있는 것이다. 죄를 지어서는 안되지만 죄를 안짓는 사람은 없다. 요셉은 꿈 얘기를 형들에게 한 것이 실수 있을 수 있다. 말을 안하고 그대로 있어서 꿈은 성취될 것인데 말을 한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것이다. 그가 그 이야기를 할 때 형들이 기분 나쁘게 들을 만도 했다. 교만할수도 있었고 형들을 알보는 느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실수라는 표현이 모자랄수도 있다. 죄라고 할수도 있겠다. 결론은 형들의 100%잘못이라고 할수만은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출발이다. 세상을 살리고 그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의 시작이 요셉의 실수였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 심하게 싸웠다. 결국 헤어졌다. 당시에 하나님에게 제자 두명 뽑아보세요 하면 바울과 바나바일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 싸워서 헤어졌다. 그 이후에 화해를 했다는

기록 없고 만나서 다시 사역을 했다는 기록은 없다. 물론 나중에 두 사람의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마가는 돌아와 함께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여하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요셉도 마찬가지이다. 실수를 한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뭐를 이야기 하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에 모든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천하만사에 너의 인생, 옆집 모든 사람 세상 모든 만사에 내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언약을잡아라 매일 사단과 전쟁을 하라. 이것이 네 인생의 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이다. 성경은 이것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도 있다. 호세아의 아내 고멜, 이 여자는 창녀이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창녀를 택하여 데리고 오라 태어난 자녀들도 그 시대에 메시지였다.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버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영적음행, 여기에 고멜이 선택을 받은 것이다. 고멜은 어떻게되냐? 계속 창녀짓을 해야 한다. 이상하지만 그 당시 하나님의 뜻이다. 목표는 이스라엘을 향한 메시지 너희는 나에게 창녀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것이 음란이다.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그를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음란이다. 이런 이야기를 잘못하면 이단될 수도 있지만 사실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다윗은 시대적인 왕이다. 그가 하는 일은 잘 알고 있다. 아내를 빼앗아 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 남편을 죽였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이것을 보고 천하만사에 내 뜻대로 된다는 것이다. 이런저런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달리해라 죄를 짓는 것도 억울한데 죄책감으로 또 놀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양심은 귀한데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못믿으면 그렇다. 물론 죄를 정당화 시키는 것은 아니다. 왜 죄에 놀리겠냐 이말이다. 사단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나는 매일 같은 죄를 지고 있어도 사단과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이미 용서했고 더 이상 우리 죄를 보지 않으신다. 절대 안바뀌신다. 오늘부로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있다면 해방되시라. 약속의 피로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을 지속하라. 요한복음 8장에 간음현장에서 잡혀 온 여자, 그 사람을 살린 것은 예수님의 용서였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을 용서했다 언약으로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 여기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에 여기에 잡히지 말라 절대 존재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다. 누리고 승리하고 사단의 머리를 깨라고 말씀하신다. 이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축복의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신다. 천하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다시 한번 마음에 받아들이고 평안한 날이 되시기를 바란다. 언약을 누리므로 기다려야 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란다. 다시 한번 이지 말아야 할 것 천하만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 전도자가 되면 성경의 모든 약속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